

< 파시즘에 맞선 국제 노동조합 네트워크 선언문 >

"자유는 불가분하다: 우리 민족 중 누구 한 사람에 대한 사슬은 모두에 대한 사슬이다."

(넬슨 만델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 1 조)

1) 전 세계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조직들은 해마다 우려할 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네오파시즘과 극우 운동의 부활을 규탄한다. 이들은 '새로운' 운동과 조직을 통해 활동하더라도, 과거의 최악의 경험들을 점점 더 명시적으로 참조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감, 이상, 목표는 여전히 같은 과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경향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지역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나, 형태는 다르더라도 이 모두는 분명히 보편적 권리와 자유의 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얽혀있다: 이는 단순히 사상과 직접적 연결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표, 전략, 선전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2) 이러한 운동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조직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타자'의 정체성에 명백히 반하는 모든 전통적 정체성을 고수할 것을 주장한다: 국가,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들은 하나의 단일 모델에 기초한 엄격한 사회로의 회귀를 촉진하며, 이는 전통적이고 '다수'가 공유하기 때문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동일한 모델을 공유하지 않는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 차별(또는 심지어 추방이나 제거)을 촉진한다.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와 '국민' 간의 직접적 관계에 기초한 매개기구가 완전히 제거된 체제를 찬양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여기서 '국민'은 정체성 기반의 '가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집단적 대표 경험도 공유하지 않는 개별적 개인들의 집합으로 간주된다.

같은 매개기구 제거의 원칙이 노동계와 노동자의 권리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민 조직화, 사회적 대표성, 보편적 요구에 대한 집단적 대응의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 주적으로 지목된다.

극우 사상과 신념에 영감을 받은 집권 세력 또는 정권을 찬탈한 군사조직이 폭력, 노조간부 살해 또는 살해 시도, 탄압, 구속, 해고 등을 통해 자주적인 노동조합 조직을 해산하고 이를 국가가 통제하는 어용노조로 대체하는 조치를 가장 먼저 취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노동권과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우리는 노동조합 조직이나 개별 노동조합원에 대한 모든 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연대와 국제적, 유럽적, 일국적, 지역적 수준에서 이러한 경향에 맞서 싸우는 방법에 대한 공동 토론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3) 이러한 사상과 조직의 확산 뒤에는 사회적 원인이 있다. 노동조합은 수년간 이를 고발하고 투쟁해 왔다: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사회적 연대를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바로 그 구조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 모델의 체계적 위기의 결과를 항상 노동자 계급과 빈민에게 전가해왔으며, 일국적 또는 초국가적 수준에서 법적 권리와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를 관철시켰다. 이는 과거의 경제 위기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특수한 위기에서, 그리고 지금 국제적 수준의 극적인 지정학적 시나리오에서도 다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노동은 평가절하되었고, 모든 형태의 불평등이 증가했으며, 성별, 세대별, 지역별 격차는 심화되었다. 비정규직이 고착화되어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작업장의 안전은 더욱 악화되어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자본의 권력이 정치권력을 지배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거버넌스' 기구와 '시민' 사이의 간극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관들은(일국적 및 초국가적 수준 모두에서) 시민들이 경제적·사회적 불안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세계적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하고 빠른 해결책'을 내세우는 극우의 선전을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 예를 들어 국경 폐쇄나 유럽연합 탈퇴와 같은 해결책이다.

극우 세력은 정교한 커뮤니케이션과 선전 수단을 통해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불안의 실제 원인을 숨기고 '적'을 만들어 비난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개인의 몫으로 돌린다. 이러한 사회에서 시민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고립되어 가는데, 이는 지배계급이 약자에 대한 억압, 조작, 착취를 영속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4)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현상과 왜곡을 퇴치하는 것을 넘어, 포용, 법치, 평등, 정의, 노동자 연대에 기초한 더 진보된 사회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근본적 역할로 인식한다.

우리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모든 노동자가 일터와 삶에서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등의 원칙은 노동 조직과 인간관계를 모두 바꾸는 핵심이다. 우리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별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한다. 모든 수준의 단체교섭, 연대,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일국적 및 초국가적 수준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동과 기업 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지키며, 진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노동은 권리와 가치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사회적·경제적 힘이다. 노동자는 개인의 조건을 넘어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의 주체가 된다 - 이는 종교, 민족, 언어, 문화, 성별,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다.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 국제적, 보편적 차원을 통해서만 모든 인류가 불의와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이러한 답들은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지지하는 보편적 권리의 인정과 구체적 실행에 기초하고 있다 - 이는 국제 인권보호 체계의 기초가 되며 - 이들이 단순한 선언적 진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 실제로 법과 행동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모든 사회는 세계 각지의 모든 남성과 여성에 대해 완전한 민주적 참여,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바로 그 평등, 연대, 정의, 포용의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는 그들의 기본적 노동권을 누려야 한다: 집단적 노동조합 구조를 통해 조직할 권리, 단체교섭에서 대표될 권리,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파업권이 그것이다.

이는 현재의 발전 모델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한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진전시키고, 불평등에 맞서 싸우며, 노동 세계의 분열과 불안정성을 뒤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개인의 평생학습권을 포함하여, 환경적·디지털 변화의 세계적 과정에서 노동자의 완전한 참여와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복지 체계의 창출과, 노동자들이 생산한 부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조세 정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는 일하는 여성과 남성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자신이 일하는 기업과 조직의 운명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강력한 발언권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은 집단적 조직과 대표 구조를 통해 일국적 및 초국가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근본적으로 기여한다.

우리의 목표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보편적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의 세계가 지닌 국제적 성격 때문에, 우리는 국제법 집행과 외교,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평화를 굳건히 추구한다. 이것만이 세계적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다.

6) 이러한 방향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노동조합들은 '파시즘에 맞선 국제 노동조합 네트워크'를 만들어 극우 운동, 민족주의, 포퓰리즘, 독재,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 배제, 억압에 맞서 싸우기로 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다음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네오파시스트와 극우 조직의 활동 방식과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성장과 확산을 부추기는 사회적 갈등(일국적 및 다국적 수준의)을 밝혀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 조사, 감시한다. 이 과정에서 극우와 싸우는 시민 조직과 운동의 연구자, 전문가, 학자, 활동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인 연대 행동을 실천하고, 노조 간부와 사업장 대표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모범 사례'와 경험을 나눈다. 또한 개별 행사와 장기적인 조직화 과정을 시작하고 발전시키며, 네오파시스트 선전에 맞서고 일국적, 유럽적, 국제적 수준에서 노동운동의 사상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공동 캠페인과 소통 전략을 펼친다. 국제적 수준에서 노동조합 운동과 시민운동이 이미 이룬 많은 경험들이 이 새로운 네트워크의 활동을 발전시키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